



원학 스님(봉은사 주지)
남종선의 돈오·남종화의 직관
마음수행 결실
13편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신의 마음 속을 살려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5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51호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선원·승가청규 한계 명확 현대적 新 청규 제정 필요

조계종 교육원, 25일 '현대사회와 청규' 세미나

종교학대사전에 따르면 '청규(淸規)'은 "교단의 기구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청정대중의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나라 시절 백장화해 선사의 '백장청규'로 시작된 청규는 현대의 조계종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성안됐지만 제대로 된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이 새로운 청규 제정과 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청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사회 승가청규는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는 2010년 선원수좌회가 발간한 '조계종 선원청규'와 2013년 성안한 '승가청규'를 점검하고 새로운 청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를 촉구할 수 있는 측면만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강 스님은 청규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권위 확보와 중도들의 관심 환기, 교육을 통한 계몽 등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계종선원청규 나 '승가청규'가 조계종 안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몇몇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 이를 폐쇄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기반

실행력과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제화를 강조했다.

또한 승가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계율과목에 '청규법'을 교육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행사교육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 만당 스님은 "청규의 법제화는 실천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가 대중의 반감을 살 것"이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청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원 및 승가청규 재검토

'분량 많고 폐쇄적' 지적

구속력 위한 청규 법제화

'계도에 중점' 반대의견도

"간략한 실천원칙이어야"

하반기 학인대상 청규 교육

으로 새로운 종단청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규의 보편적인 정착은 위에서부터의 모범을 통해서만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새로운 승가청규 어떻게 종단에 정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서 법제화를 통해 청규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주경 스님은 "종단의 기준과 지침이 돼야 할 청규와 위의 세목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실천적인 규정이기 보다는 개념적 역할에 머물고, 법적

라고 비판했으며, 교육 아사리 자현 스님은 "승려법과 관련한 징계도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청규를 법제화 한다고 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이 현대사회 부합하는 승가청규에 대해 다시 논의함에 따라 새로운 승가청규 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급 승가대학에 청규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교재 제작도 이뤄진다. 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계몽과 계도가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세미나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청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려 한다"면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승가교육 교재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구인사 개산 70년 찬탄의 하모니

명실공히 국내 최대 관음성지로 발돋움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대중 원력을 찬탄하는 불음의 하모니가 소백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6월 19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된 개산 70주년 음악회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의 기원'을 주제로 열렸다. 음악회에서는 천태종 말사 10개 합창단원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정엄함을 연출했다. 이날 총지휘는 영춘지회 권준대 지휘자가 맡았다. 합창단은 '묘법연화의 노래' 등 10여곡의 찬불가를 음성공양했다.

승가교육분담금 영구 존속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22일 사찰문화재법 개정안 가결

임정료 5% 징수 부칙 중

5년 시한 내년부터 폐지

중헌 개정안 가결 이뤄져

중앙승가대 지원 등 승가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임정료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해 온 제도가 갱신 없이 영구히 존속된다. 이에 따라 승가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6월 22일 제202차 임시회를 열고 중헌 개정안·중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하루만에 폐회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교육특별분담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갱신했던 교육특별분담금 징수 시한이 2016년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중법 개정안으로 함께

상정됐던 △총림법 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해의특별교구법 개정안은 차기 회기로 이월됐으며, 총무원이 발의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은 법안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제48차 원로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상정된 중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66표 중 52표가 찬성에 중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3명,

무효는 1표가 나왔다. 중헌 개정안은 △원로회의의 명칭을 현행대로 존치 △제9조 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를 권리제한을 한다 △제94조 4항 '사찰사람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를 승계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원로회의가 권고한 △제3조에 '소의율은 사본율과 범망경으로 한다'를 추가 △제105조 3항의 방향 중임 금지 사항 제3항 △제128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멸민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삭제 권고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성민 기자
(관련 해설 2면)

동행, 1:1 해외 아동 결연 사업 실시

불교계 단체로는 최초... 교육·의료 혜택 등 제공

빈곤국가 아동과 1:1 결연은 일반 해외 구호 단체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이지만 불교계 구호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같은 1:1 빈곤 아동 결연사업이 불교계 최초로 시작된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모금 전문 기관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

승, 이하 동행)은 "탄자니아 무와송가 마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준비한 결연 후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동행은 무와송가 지역 4개 초등학교의 결연가정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440명의 학

생을 인터뷰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330명의 아동을 선발했다.

1:1 결연 사업은 1인 매월 3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아동과 결연이 되면 동행은 한 달간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식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이 속한 지역에 육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

용된다. 이에 대해 라운선 동행 탄자니아

지부 주임은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한 흙집에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버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물동이가 아닌 연필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며 "2년 간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탄자니아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좋아한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연 후원 문의 (02)737-9594
신성민 기자

현불상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용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불상 단독
입점 상품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종류		규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상 TEL 02)2004-8216